

## 광주·전남에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산자부, 전국 첫 지정  
혁신도시 핵심지구 등 1지구  
목포 대양산단 등은 2지구로  
기반시설·연구개발 등 지원  
에너지신산업 거점 육성

광주·전남이 전국 최초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다. 국내 에너지 신산업 시대를 주도할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구상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 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새만금과 함께 광주·전남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일대를 중심으로 광주 첨단지구와 장성 일대를 포함한 '광주·전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시·도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나주 에너지국가산단·한전공대 연구클러스터 등을 핵심(코어)지구(10.73㎢)로 조성하고 광주 첨단과학산단(1~3단계)·빛그린 국가산단·장성 나노기술일반 산단을 연계 1지구(6.85㎢), 목포 대양산단과 신항 배후 부지(1.34㎢)를 연계 2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총 18.92㎢)을 수립한 상태다.

지구별로 스마트 그리드·에너지지효율 향상·풍력 R&D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핵심 지구의 경우 한전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와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는 등 최첨단 랜드마크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 '빅스포 2019' DJ센터서 개막



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9)가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종갑 한전사장 등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너지 분야 신기술을 선보이는 BIXPO에는 39개 글로벌 기업과 160여개 중소기업, 40여개 우수 새싹기업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14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생산, 소비, 거래에 이르는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송·배전 기자재, 분산 전원 운용 기술에 주력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 생태계와 함께 에너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전남도가 나주에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직류배전망 실증 사업을 규제자유특구 제도로 추진하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치다.

신안에 8.2GW 해상 풍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ESS, 전력 송배전, 수소 등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서남권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오는 2029년까지 4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블루 에너지'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광주시장, 전남지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위원회를 둔다. 실행기구로 광주와 전남에 각각 독립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에너지매출 50%) 지원 ▲연구기관 비용 지원 ▲전문인력양성 비용 지원 등을 받는다.

또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연구개발 지원·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대학·연구소·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인력양성 등의 비용 제공도 가능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반시설 조성과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성장 근거지로 확고히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조성 등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에 튼튼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지역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일류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검찰수사 결과 건설사 사업자 반납해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년 7월 전 끝낸다

### 광주시, 기존 계획 재확인

광주시가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공원시설로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단계까지 사업을 끌고가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9개 공원, 10개 우선협상 대상자(건설사)와의 사업협약체결을 당초 계획처럼 이달 중 마치고, 내년 3~4월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이는 단순히 광주시 계획이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속도를 감안할 때 목표와 실제 사업 진행도가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민 우려 등을 감안해 공원일몰제 시행보다 2~3개월 앞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혜·비리의혹에 휩싸인 중앙공원1·2지구 사업자인 (주)한양, (주)호반건설 추진 속도를 감안할 때 목표와 실제 사업 진행도가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민 우려 등을 감안해 공원일몰제 시행보다 2~3개월 앞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혜·비리의혹에 휩싸인 중앙공원1·2지구 사업자인 (주)한양, (주)호반건설 추진 속도를 감안할 때 목표와 실제 사업 진행도가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민 우려 등을 감안해 공원일몰제 시행보다 2~3개월 앞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건설사의 사업포기 시점에 따라 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 공모지침대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후순위 업체가 승계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지금까지 진행해왔

던 행정절차 전반을 광주시가 승계해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사업을 끌고 가 공원시설 해제를 막은 후 사업자를 재공모할 것인지, 재정공원사업(시 예산으로 공원 매입)으로 돌릴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환경국 이신 계장은 "공원별로 사업자들이 토지보상금 80%를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금의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업체 귀책사유로 사업 포기시 광주시가 이를 몰수한다'는 규정을 사업협약서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몰수 규정에도 건설사가 사업 추진보다 중도 포기가 실적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방책"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사들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도 포기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가 거론된다. 검찰 수사, 토지보상비 규모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주)한양, (주)호반건설은 물론 나머지 건설업체들도 '건설업 특성상' 검찰이 착심하고 수사를 펼 경우 수사의 불뚝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을까 전전긍긍하며 자신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건설사가 공원부지 전체를 사들여 부지 면적 70% 이상을 공원 시설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토지보상비가 당초 건설사 예측범위를 크게 웃돌 경우 예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면 아파트 가구수를 늘리거나 분양가를 상향 조정할 경우 또다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잡음을 부를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 관계자 전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저출산 여파 ... 여군 늘리고 교사 줄인다

### 정부, 군 50만명으로 감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 다가치그린 동네 만들기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소통하며,  
동네환경 개선과 지속가능발전 5차의제를 삶 속에서 이행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공동체 조성

#다가치그린 모바일 앱

소통 활성화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소통·환경지킴이·나눔

공동체 의식 확산

#다가치그린 공모사업

#지속가능발전 5차의제 실천 #동네환경 개선